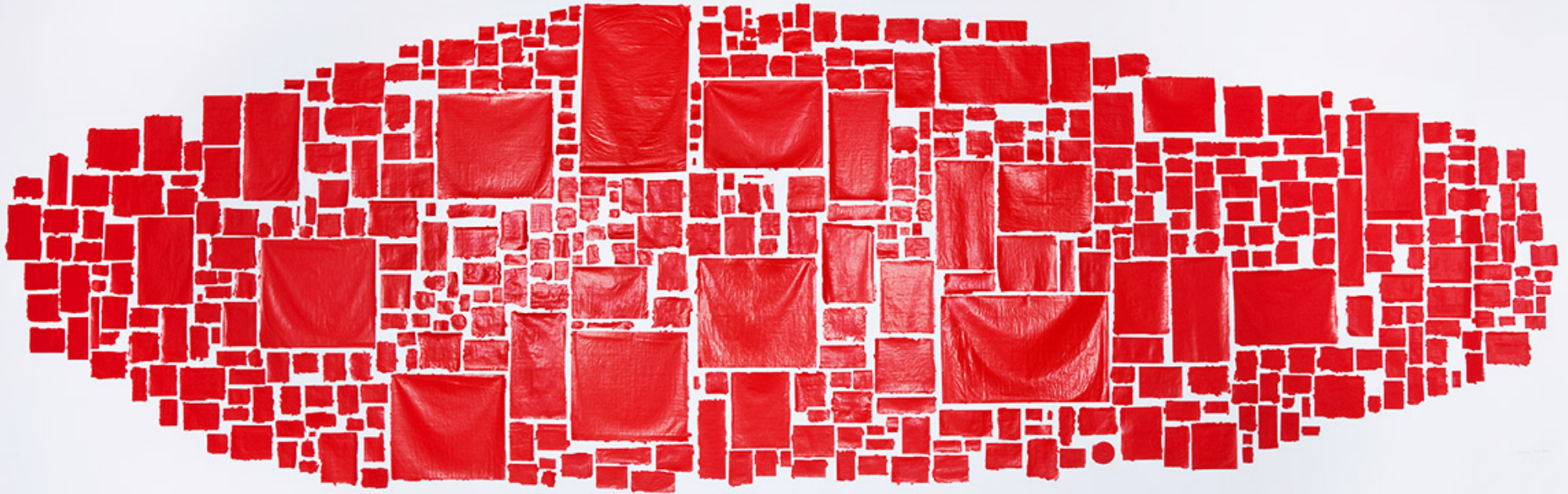


Hyundai Commission 2015 Artist: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스



기록하는 완벽주의자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난 문학가이자 개념미술가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는 조각, 비디오, 설치, 회화 등 다양한 영역의 예술을 파고드는 인물입니다. 그는 190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행보를 보인 가브리엘 오로즈코, 데미안 오르테카, 닥터 라크라, 미네르바 쿠에바스 등 멕시코 개념미술 작가들 중에서도 특히 두각을 나타냈으며, 라

1987년에서 1991년까지 멕시코 현대미술의 대가 가브리엘 오로즈코의 가르침을 받은 크루즈비에가스는 오로즈코를 비롯해 가브리엘 쿠리, 닥터 라크라 등과 함께하는 “금요일 워크숍(Friday Workshops, Taller de los Viernes)”에 참여했습니다. 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은 매주 모였지만, 특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시험을 보거

틴 아메리카 현대미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작가로 꼽힙니다. 이들은 종종 영국의 혁신적 예술가 그룹인 YBAs(Young British Artists)와 비교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알렉산더 로드첸코와 카지미르 말레비치 등 소비에트 아방가르드 작가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급진적 예술 운동의 흐름까지 지닌 크루즈비에가스는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억압됐던 것들의 귀환

크루즈비에가스는 멕시코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남미 특유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영상과 설치 작품을 완성합니다. 지역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오브제와 그 주변에서 발견한 재료들을 활용, 새로운 형태의 조각을 만드는 그는 2007년 ‘오토콘스트럭시옹(Auto-construcción)’이라는 시리즈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을 대표하는 이 용어는 1960년대 중반 멕시코의 시골이나 낙후된 남쪽 지방에서 수도 지역 멕시코시티로 이주한 이민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크루즈비에가스의 부모 세대가기도 한데, 어린 시절 멕시코의 빈민가정에서 성장했던 그는 자신의 부모를 비롯해 어른들이 텅 빈 땅에 정착해 살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재료를 수집하고 능력을 동원해 마을을 건설한 것에 착안해 이 용어를 작품으로 끌어왔습니다. 건축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아무도 거주할 수 없는) 화산바위로 가득 찬 아후스코에 직접 마을을 만들고 도시의 모습을 형성한 과정들이 크루즈비에가스의 작품에서 상징화된 것입니다.

작가에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크루즈비에가스의 작업은 상당히 개인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혁명의 메타포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과 정체성이 주축을 이루는 ‘오토콘스트럭시옹’ 시리즈는 개인의 정체성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성을 대변하며,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현대에서도 이렇듯 굳건한 공동체 정신과 희망이 유효한가를 되묻는 작업이 된 것입니다.

크루즈비에가스는 갤러리 공간 안으로 “자가-건축물”들을 들여오면서, 건물 내부와 외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탐구합니다. 또 이러한 DIY 프로젝트는 어떤 가족의 특정한 욕구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직접 건설하고 정착한 “자가 건설”은 가족구성원과 이웃들을 포함한 커뮤니티 전체를 연결해, 그들이 결속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수료증을 발급받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함께 모여 토론하고, 비평하고, 개별 작업을 진행할 뿐이었는데, 크루즈비에가스는 이 모임에 대해 “우리는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도, 특별히 전시를 준비하지도 않았다. 하나의 그룹처럼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함께 작업하지도 않았다. 이 모임은 나에게 있어 하나의 ‘교육’이었다”고 술회합니다. 이 모임은 1990년대에 이르러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테미스토클레스(Temistocles) 44’라는 공간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공간을 설립한 이가 바로 크루즈비에가스와 에두아르도 아바로아(Eduardo Abaroa)였습니다.

한편 크루즈비에가스가 제작한 거대 규모의 조각들은 전혀 새로운 일상용품이 되며, 작품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각 오브제들은 저마다 색다른 정체성을 지닙니다.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와 레퍼런스를 담은 그의 프로젝트들은 글래스고, 파리, 옥스포드, 광주, 카셀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08년 스코틀랜드 코브 파크 레지던시(Cove Park Art Residency)에 입주해 작업을 펼쳤던 크루즈비에가스는 같은 해 글래스고 현대미술 센터(Centre for Contemporary Arts, Glasgow)에 마련된 개인전에서도 역동적인 조각 설치 작품을 선보였고, 이는 작가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양모, 버려진 울타리, 고무 부표, 부러진 나뭇가지, 오래된 옷걸이 등으로 즉흥적 작품을 완성했는데, 이는 “계획되지 않은 아상블라주(Unplanned Assemblage)”라고 불렸습니다. 다양한 물질들이 작가의 손을 거쳐 특별한 오브제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그는 또 우연히 수집한 종이더미들, 리플렛, 티켓, 영수증 등을 모은 후 붉은색으로 칠한 <Blind Self Portrait>(2008)도 선보였습니다. 한편 아후스코에 거주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18개의 노랫말을 작사한 그는 지역 밴드들과 함께 전자음악, 포스트락, 포크, 펑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완성시켰고 직접 리모델링한 자전거를 타고 글래스고 거리를 누비며 음악을 연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A.C. Mobile>(2008)로 ‘커먼 휠 프로젝트(The Common Wheel project)’의 존 오’하라(John O’Hara)와 협업한 프로젝트입니다. 멕시코인들과 스코틀랜드인들의 태도의 차이를 발견하게 만든 이 두 작품은 모두 현재 테이트 컬렉션에 소장돼 있습니다.

스펙터클한 사회의 소소한 것들



2012년 독일 카셀에서 열린 <도큐멘타 13>에서 그는 픽업 스틱(Pick-up Sticks)으로 불리는 원목 퍼즐 게임이 포함된 공공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오브제들, 작가 자신의 몸 등을 활용해 사회적인 조각을 완성했는데 그것은 피크닉, 산책, 길거리 게임 등으로 재현했습니다. 처음 도큐멘타에 초대됐을 때, 어떠한 자원과 비용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는 작품 제작비용을 0으로 설정했습니다. 작가는 34개의 픽업스틱을 서른네 가지의 각기 다른 색으로 칠한 후, 예술을 관람하는 사람이 '없는' 길거리에서 이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작가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나는 이 장소들은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일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프레임으로 간주했다. 몇몇 지나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행위를 보지 못했다. 특별한 즐거움은 없었지만 많은 배움이 있었고 덕분에 내겐 그곳에서 열리는 모든 전시와 퍼포먼스, 모든 설치물들을 관람할 시간도 생겼다. 도큐멘타에서 진행한 나의 프로젝트는 결과물은 없지만, 이 개념은 나의 다른 작업에서 주요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는 2012년 ‘오토디스트럭시옹(Auto-deconstrucción)’이라는 개념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가-건축’과 동일한 맥락으로 읽히지만, 실은 정반대의 뜻인데, 그가 이 용어를 처음 소개한 것은 로스앤젤레스 Regen Projects에서 열린 전시 <Auto deconstrucción 1>이었습니다. 그는 ‘건설(construcción)’을 위해서 동시에 ‘파괴(deconstrucción)’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시에서 그가 선보인 작품은 자신의 삼촌이자 음악가인 미구엘 프라도(Miguel Prado)에 대해 직접 쓴 짧은 이야기였는데, 멕시코계의 미국인 강패를 일컫는 파추코(Pachuco)였던 프라도가 멕시코에서 샌프란시스코, 파리까지 여행한 내용입니다. 프라도의 약기를 화자로 설정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 작품은 후에 그의 작품을 위한 상상력과 스타일 구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작가는 최신작들을 통해 하위문화의 음악과 패션, 이념들을 우화적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 with ARTINPOST



<AC Mobile>

2008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rimanzutto, Mexico City